

전주문화재단 '이야기자원 공연화' 서 '스파이크 어게인' 선정

치열한 경기, '삶'이라는 코트서

근영여고 배구단 소재 국가대표 배출해 낸 사실 회상하며 기획돼... 내년 9월 실연

(재)전주문화재단은 최근 '전주 이야기자원 공연화(이하 사업)' 쇼케이스 공연 심사를 통해 제이디엠 아트엔터테인먼트의 '스파이크 어게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전했다.

선정작인 '스파이크 어게인'은 전주 근영여고 배구단을 소재로 삶이라는 코트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공격과 수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점수를 받았다. 이 극을 기획한 제이디엠 아트엔터테인먼트 박예소 대표는 작품의 내용에서 벗어나 전주를 알릴 수 있는 현대적인 소재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던 중, 모교 배구단이 국가대표를 배출해 낸 사실을 회상하며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쇼케이스 심사에는 전문가 심사위원 3명과 시민 20명을 선착순 모집, 전문가(70%)와 시민(30%)의 평가로 선정했다. 전문가 심사위원으로는 극작가, 연출가, 연극배우가 참석했으며, 시민 심사위원은 20대부터 6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주 이야기자원 공연화'는 공연예술



2020 전주이야기자원 공연화 최종 선정작, 쇼케이스 공연 모습.

분야의 창작 환경 개선과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2016년부터 진행해 온 이 사업은 전주의 공연예술 단체가 전주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연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단체의 자생력을 높여 공연예술시장에 진출 할 기회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 5년간 공연 제작기획 과정, 창작

시나리오 과정 그리고 시범공연 제작과정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됐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2개년 사업으로 확장시켜 시범공연제작 전에 쇼케이스 공연 과정을 더해 4단계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작품 제작 기간이 부족하다는 공연예술 단체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 쇼케이스 공연 심사 과정은 다음 단계인 공연제작 과정에서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자문을 통한 사업의 보완이다.

김선정 문화진흥팀장은 "공연예술분야에 있어 창작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디테일한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연제작발표 이후에도 선정단체가 지속적으로 작품을 무대에 올려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선정된 '스파이크 어게인' 공연은 2021년 9월 실연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천주교주교회의,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맞아
29일부터 내년 11월 27일까지 1년으로 운영

오는 29일부터 내년 11월27일까지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1년으로 운영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3일 "한국의 첫 가톨릭 사제로 1846년 병오박해 때 순교해 1984년 성인 품에 오른 김대건 성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한국 천주교회 차원에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년의 주제 표어는 '당신이 천주교인이오?'이다.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기 전 관아에서 심문당할 때 받은 질문에서 인용된 문장이다.

이번 주제를 제안한 인천교구 김일희 신부는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라는 질문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천주교인 모두에게 하는 말이므로 질문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기고 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첫날인 29일 낮 12시에는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개막 미사가 열린다.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와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공동 집전한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주례와 강론을 맡고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미사 중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박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염수정 추기경은 '성 김대건 신부 성상'을 명동대성당 제대 오른쪽에 모시면서 축복식을 거행한다. 개막 미사는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가톨릭평화방송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1년 기간 중 주요 행사로는 내년 ▲6월 11일 예수 성심 대축일에 교구별로 실시될 1년 사제 대회 ▲8월21일 성인 탄생 200주년 기념 미사 ▲8월 17~19일 대전교구 1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10월28일 수원교구 1년 기념

학술대회 등이다.

폐막 미사는 2021년 11월 27일 전국 교구 주교좌성당에서 진행된다.

서울대교구의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 도보 순례, 대전교구의 내포 도보 성지 순례, 수원교구의 '청년 김대건 순례길' 스탬프 투어 등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프로그램도 전국에서 수시로 치러진다.

'1년'은 구약성경 시대부터 이어져 온 가톨릭교회의 전통이다. 교회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100주년 또는 50주년 단위로 기념하면서 거행된다.

주교회의는 김대건 신부의 순교 영성을 알리고 신자들의 기도와 신앙 실천을 돕기 위해 '1년살이 안내서' 단행본과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한 1년 대화 및 기도문, 전국 16개 교구가 지정한 1년 순례 성지와 성당 187곳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뉴시스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신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문화재위원회 심의 따라
농경 분야로서는 첫번째

문화재청이 지난 20일 열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부터 전통지식 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에 농경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잠정이었던 사항은 지정 명칭이었다.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에 대한 30일 간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기간(9.28~10.27)을 거치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관련 협회, 관계전문가와 국민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지정 명칭을 '고려인삼'으로 제시한 것이 많았는데, 소수이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학술적·문화적 가치에 입각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그 결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려인삼이라는 고유명사보다는 일반명사인 인삼으로 해 다양한 인삼 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 점 ▲고려인삼으로 할 경우 특정 상품이나 상표



현재 해기림 시설의 모습.

(사진=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고려인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명칭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점 등을 이유로 지정 명칭을 '인삼'으로 했다. 또한 인삼과 관련된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약용(藥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약용문화란 약재의 의미를 넘어서 인삼 관련 음식, 제의, 설화, 민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삼 재배와 약용문

화'를 지정 명칭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은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비롯해 인삼과 관련 음식을 먹는 등의 문화를 포괄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다음달 1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문체부, 문예수위 후보자 내달 7일까지 공모... 무용 등 총 10명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문체부는 이날 문예위 위원 위촉을 위해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추천위원회는 분야별로 ▲무용 3명 ▲음악 3명 ▲문화일반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공고문에 안내된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khjl020@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앞으로 음악·무용·문화일반 분야 문예위 위원 후보자를 공모·심사해 문체부에 추천하게 된다.

문예위 비상임위원 전체 위촉 절차는 추천위원회 모집·구성, 문예위 위원 후보자 공모·심사, 최종 후보자 2배수 문체부 장관에 추천, 최종후보자·추천위원회 명단 공개, 최종 위촉 순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예위가 문화예술 현장과 더욱 가까운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우수한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